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정립

Reinventory of the SLS: development of SLSII

김미량* 순천향대학교

Kim, MiLyang *Soonchunhyang Univ.*

요약

이 연구는 진지한여가 척도를 재정립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진지한여가 척도로는 SLSES(serious leisure sports experience scale), SLIM(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SLS(serious leisure scale) 등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기존 척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SLS를 재검토하여 척도를 다시 구성하였다. 척도의 재정립을 위해 6명의 여가학전문가를 구성하여 진지한여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조작적 정의를 재구성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353개의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재정립된 진지한여가 척도는 인내, 여가전문성, 개인적노력, 지속적혜택, 여가정체성 및 독특한 기풍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의 조작적정의를 하였다. 둘째, 재정립된 진지한여가 척도(SLSII)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지한여가척도II(SLSII)는 향후 진지한여가에 대한 양적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reviewed critical issues of several serious leisure measures with a purpose to refine the serious leisure scale (SL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rious leisure. The review of the most commonly known scales in the extant literatures include the serious leisure sports experience scale (SLSES),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SLIM), and the serious leisure scale (SLS). The review results generated meaningful insights that supplemented the serious leisure scale and further examin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scale. The SLS reconstruction process involved six serious leisure experts to redefine scale dimensions, serious leisure qualities, and measurement items. Total of three hundred and eighty subjects participating in leisure sport activities were survey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six serious leisure qualities (i.e., perseverance, leisure career, personal effort, durable benefits, leisure identity, and unique ethos). The serious leisure scale was finally redefined and labeled as the serious leisure scale II (SLSII). This particular scale may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search development in the domain of leisure studies in general and serious leisure in particular.

Key words: Serious leisure, serious leisure scale, scale development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mlkim@sch.ac.kr

서론

진지한여가는 개인이 보다 진지하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1982년 Stebbins가 개념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진지한여가는 '아마추어나 취미생활자, 자발적봉사자들의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 활동의 가치와 흥미를 발견하여 관련 전문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쌓고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이를 통해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bbins, 1982, 1992a, 1992b, 2001). 이러한 진지한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6가지로 제안되었는데 최근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에 대한 노력(need to persevere at the activity), 유용한 여가경력(availability of a leisure career), 지식과 기술을 얻으려는 노력(need to put in effort to gain skill and knowledge),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realization of various special benefits), 독특한 신념과 사회세계(unique ethos and social world),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정체성(an attractive personal and 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seriousleisure.net/concepts.html>).

진지한여가가 현대인의 여가활동 참여수준과 참여 형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진지한여가를 이론적 틀로 하여 본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초기연구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여가활동이 진지한여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강효민, 2000, 박수정, 2004, 이연주, 2005, Ariai & Pedlar, 1997, Baldwin & Norris, 1999, Goff, Fick, & Oppliger, 1997, Yoder, 1997). 이러한 연구는 진지한여가의 특성과 보상 등을 보다 체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개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했을 때 진지한여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진지한여가의 개념정립 및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지한여가에 대한 양적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의 진지한여가 척도는 박수정(2004)의 SLSSES(serious

leisure sports experience scale),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2008)가 개발한 SLIM(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김미량(2009)의 SLS(serious leisure scale)등이 있다. 이러한 척도개발 연구는 진지한여가 참여자의 참여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여가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과 관계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진지한여가 척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척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김미량, 김재운 및 황선환, 2010). 먼저, 박수정(2004)의 SLSSES는 인지적요인, 정서적요인, 사회적요인 그리고 환경적요인의 4가지 요인과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개념화가 아닌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연역적 방법으로 수행되어 진지한여가 고유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김미량, 2009).

두 번째로 Gould et al.(2008)의 SLIM은 18개 요인(perseverance, significant personal effort, career progress, career contingencies, identity with the pursuit, unique ethos, personal enrichment, self-actualization, self-expression abilities, self-expression individual, enhanced self-image, self-gratification satisfaction, self-gratification enjoyment, re-creation, financial return, group attraction, group accomplishments, and group maintenance)과 각 요인별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72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SLIM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거의 유사한 의미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Beard & Ragheb(1980)이 제안한 척도문항의 적절성 평가항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요인의 구성 자체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김미량, 김재운 및 황선환, 2010) SLIM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여가참여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변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후속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들이 제대로 분류되기 어렵다. 실제로 SLIM은 국내에서 황선환 및 서희진(2009)에 의해 번역되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연구결과 자기만족과 즐거움, 노력과 발전, 집단친화 및 집단 성취, 자아실현 및 표현 등이 한 개의 요인으로 통

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비슷한 요인 간에 통합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하위요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18개의 많은 하위요인으로 인해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복잡한 결과를 산출하여 연구의 간명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해석이 어렵게 된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SLIM의 문항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양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설문조사 수행 시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김미량, 김재운 및 황선환, 2010).

세 번째로, 김미량(2009)의 SLS는 김미량, 원형중 및 홍석표(2008)의 연구에서 개념화된 진지한여가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요인을 근거로 개발된 진지한여가 척도이다. SLS는 진지한여가의 6가지 특성과 사회적, 개인적 보상(rewards)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최초에는 10개의 요인으로 척도를 개발하였고 그 후 전문가회의, FGI, 통계적분석 등을 통해 6개요인(인내, 전문성, 노력, 내적보상, 동일시, 고유감정), 29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SLS는 이론적 개념화를 통한 귀납적 접근으로 척도가 개발되어 진지한여가의 특성과 진지한여가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SLS는 요인별 문항수가 3개에서 7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분석 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척도의 개발과정에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의 문항이 '내적혜택'과 '동일시' 요인에 포함되어 진지한여가의 '혜택(benefits)'과 '보상(rewards)'이 한 요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상'에 대한 문항이 '내적보상' 요인에 포함되면서 문항의 수가 다른 요인에 비해 많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Stebbins(1992b, 2007)가 진지한여가의 6가지 특성과 진지한여가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보상은 별개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한다면, 진지한여가의 척도를 개발할 때 6가지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Stebbins(2007)는 진지한여가의 6가지 특성 중 '지속적인 혜택'이란 '기대의 여부를 막론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진지한여가를 추구한 결과로 주어지는 활동의 보상

(rewards)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의 보상은 진지한여가에 참여하면서 얻는 결과물로 표현되지만, 활동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며 참여 중에 나타나는 보상들이고 이 보상들은 진지한여가를 지속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또한, 진지한여가의 참여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보상은 여가의 종류나 참여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지한여가를 측정하는 척도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SLS 뿐만 아니라 SLIM에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하위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미량(2009)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개발 초기에는 척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지속적인 타당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이미 개발되어있는 척도라고 하더라도 후속연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척도를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여가에 대한 기존의 척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지한여가 척도(SLS)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척도를 재구성하고, 새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정립을 위해 두 단계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기존의 진지한여가 척도문항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척도를 재구성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음 단계로 새로 구성된 진지한여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진지한여가 척도를 재정립하였다.

1. 척도의 문항점검 및 재정립

기존의 진지한여가 척도(SLS)를 재정립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척도 하위요인의 검토 및 수정, 조작적 정의의 수정이 이루어 졌고 그에 따라 하위문항이 재설정 되었다. 그리고 6명의 여가학 전문가로부터 재정립

된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은 진지한여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6명의 전문가에게 척도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문헌검토를 통해 재정립 된 새로운 하위요인과 조작적정의, 요인별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적합', '부적합', '수정요함' 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척도의 요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의 하위요인, 조작적정의, 요인별 문항에 대해 2차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요구하여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새롭게 정립된 진지한여가 척도(SLSII)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여가스포츠 활동으로 야구, 테니스, 스쿼시, 마라톤, 배드민턴 등에 참여하는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불성실한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요인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참여 종목	야구	69	19.5
	테니스	75	21.2
	스쿼시	70	19.8
	마라톤	61	17.3
	배드민턴	78	22.2
연령	20대	22	6.2
	30대	89	25.2
	40대	129	36.6
	50대	113	32.1
월소득	100만원 이하	87	24.7
	101-200	82	23.2
	201-300	72	20.4
	301-400	62	17.5
	400만원 이상	50	14.2
학력	고졸	62	17.5
	대학재학중	131	37.1
	대학졸	112	31.7
	대학원졸	45	12.8
	기타	3	.9
계		353	100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3명이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과

1.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검토 및 문항개발

1) 척도의 하위요인 재검토 및 조작적 정의

기존의 진지한여가 척도를 기초로 선행연구과 참고 문헌을 분석하여 척도의 하위요인을 수정하였다. 먼저 진지한여가의 하위요인을 6가지 특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문헌검토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표 2>와 같이 하위요인을 재설정하고 하위요인 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기존의 진지한여가 척도의 하위요인은 '인내', '전문성', '노력', '내적보상', '동일시', '고유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문헌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문성'은 '여가전문성'으로, '동일시'는 '여가정체성'으로, '내적보상'은 '지속적 혜택'으로 '고유감정'은 '독특한 기쁨'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6명의 여가학 전문가집단은 수정된 척도의 하위요인이 기존 척도의 하위요인에 비해 진지한여가 의 6가지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지한여가 척도의 하위요인이 변경됨에 따라 문헌검토를 통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작적정의가 보다 명료하게 정의되었고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척도의 문항 재검토 및 수정

새로 구성된 진지한여가 척도의 6개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을 요인별로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 척도의 문항을 바탕으로 새

표 2 진지한여가척도(SLS II) 하위요인 및 조작적 정의

기존 하위요인	수정된 하위요인	조작적 정의
인내 (persevere)	인내 (perseverance)	여가활동에서 발생하는 인지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감정이다. 참여자가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당황스러움, 곤란한 상황, 긴장감 혹은 거북스러운 일을 하는 것 등을 인내하여 끝까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인내는 다른 여가형태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전문성 (career)	여가전문성 (leisure career)	여가활동에 대한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쌓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특별한 기회나 전환점을 통한 성취 및 참여의 단계에 의해 형성된다. 진지한여가 활동의 전문성은 '주관적인 전문성'이다.
노력 (effort)	개인적노력 (personal effort)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지속적인 개인적 노력이다. 개인적인 노력은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질, 추구하는 기술과 만족에 대한 수준이 높은 고차원적인 노력이다.
내적보상 (internal reward)	지속적혜택 (durable benefits)	열성적이고 진지한여가활동 참여로 인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참여자는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과 강한 성취감, 자기풍요, 자아실현, 재창조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향상 되었다고 느낀다.
동일시 (identification)	여가정체성 (leisure identity)	여가활동과 동일시의 감정을 갖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독특한 여가정체성을 형성한다. 여가활동에 대한 일체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및 지식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가활동에 높은 애정을 보이고 강한 동일시로 인해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활동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흥분되어 말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한 여가활동은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성이 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활동의 참가자로 알려져서 참가자와 그 활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유감정 (unique ethos)	독특한기풍 (unique ethos)	같은 활동을 하는 여가참여자 사이에 공유된 그들만의 태도, 관습, 가치, 신념, 목표 등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정신이다. 같은 여가활동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동료나 같은 여가 사회 구성원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연합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과 유지에 공헌하는 것이다. 독특한 기풍이 강화될 때 참가자들 간의 연대감이 강화된다.

로운 조작적 정의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연구자와 2인의 여가학박사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척도에서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삭제하였고 진지한여가의 6개의 특성에 맞춘 문항을 재구성하여 각 요인별로 8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1차적으로 구성된 척도 문항의 내용 적합성 검토는 여가학 전문가 6인에게 48개 문항, 요인의 조작적정의, 그리고 Beard & Ragheb(1980)이 제안한 문항검토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문항에 대해 진지한여가 척도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각자 '1: 부적절', '2: 보완 또는 논의 필요', '3: 적절'의 3가지의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개별적인 평정결과를 취합한 다음, 6명중 5명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항목은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4명이 '적절'로 평가한 항목은 제외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6개요인 24개의 문항으로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가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문항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진지한여가척도(SLSII)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재정립 된 진지한여가 척도(SLSI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에서 취합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신뢰도분석, 문항삭제 시 신뢰도 상승, 문항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결측치를 KNN imputation(k-nearest neighbour imputation, k=10)으로 대체하였고 모형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문항의 삭제 고려기준은, 문항삭제 시 전체 신뢰도계수의 상승, 요인내 문항 간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요인 부하량이 .7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낮은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를 통한 정규성 검증의 기준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왜도의 절대값은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7보다 작아야 자료의 정

표 3. 진지한여가척도II(SLS II)의 요인과 문항

요인	문항
인내 (perseverance)	나는 oo활동에 참여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한다.
	나는 oo활동에 참여할 때 신체적 위험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참여한다.
	나는 oo활동에 참여할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참고 이겨내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나는 oo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다.
여가전문성 (leisure career)	나는 oo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나는 높은 수준의 oo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oo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노력 (personal effort)	내 주변 사람들은 oo분야에서 나의 경력을 인정한다.
	나는 oo활동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oo에 대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나는 oo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지속적혜택 (durable benefits)	나는 oo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oo활동은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준다.
	oo활동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가정체성 (leisure identity)	oo활동 참여는 깊은 성취감을 준다.
	oo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다.
	내가 참여하는 oo활동은 내 삶의 중심에 존재한다.
	내가 참여하는 oo활동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
독특한기풍 (unique ethos)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oo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내가 참여하는 oo활동은 나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나는 oo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열정으로 참여하는 감정을 공유한다.
	나는 oo활동에 열성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동질감을 느낀다.
	나는 oo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다.
	나는 oo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

표 4.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의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Cronbach a
인내(perseverance)	.801
여가전문성(leisure career)	.782
개인적노력(personal effort)	.880
지속적혜택(durable benefits)	.744
여가정체성(leisure identity)	.802
독특한기풍(unique ethos)	.849

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Park, 2005). 먼저, 진지한여가 척도(SLSII)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로 .744-.880으로 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고 모든 요인에서 삭제시 신뢰도가 상승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 되었다.

한편, 구조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 한 결과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

표 5.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χ^2	df	Q	P	CFI	TLI	SRMR	RMSEA
997.847	362	2.757	<.001	.944	.938	.038	.048

이 $\chi^2=997.874$, $df=362$, $p<.001$, $Q=2.757$. $CFI=.944$, $TLI=.938$, $SRMR=.038$, $RMSEA=.048$ 로 나타나 조선배 (1996)이 제안한 만족할 만한 허용수준($Q<3.0$, $GFI>.90$, $TLI>.90$, $SRMR<.05$, $RMSEA<.05$)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적합도 중 $\chi^2=997.847(df=362,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χ^2 검증의 경우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chumacker & Lomax, 1996).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지한여가척도(SLSII)는 인내, 여가전문성, 개인적노력, 지속적혜택, 여가정체성, 독특한기

표 6. 진지한여가척도(SLSII)의 확인적 요인분석

		Standard Estimate	S.E.	C.R.
인내1	← 인내	.761	.076	10.613
인내2	← 인내	.748	.072	10.134
인내3	← 인내	.750	.091	10.340
인내4	← 인내	.856	.068	12.826
전문1	← 여가전문성	.791	.077	10.922
전문2	← 여가전문성	.817	.071	11.741
전문3	← 여가전문성	.654	.084	8.526
전문4	← 여가전문성	.706	.096	9.406
노력1	← 개인적노력	.704	.096	9.480
노력2	← 개인적노력	.768	.089	10.698
노력3	← 개인적노력	.886	.070	13.546
노력4	← 개인적노력	.772	.081	10.969
혜택1	← 지속적혜택	.704	.096	9.480
혜택2	← 지속적혜택	.768	.089	10.698
혜택3	← 지속적혜택	.886	.070	13.546
혜택4	← 지속적혜택	.772	.081	10.969
정체1	← 여가정체성	.688	.103	8.870
정체2	← 여가정체성	.787	.102	10.578
정체3	← 여가정체성	.838	.095	11.505
정체4	← 여가정체성	.744	.094	9.725
기풍1	← 독특한기풍	.705	.093	9.068
기풍2	← 독특한기풍	.753	.090	9.868
기풍3	← 독특한기풍	.844	.074	12.344
기풍4	← 독특한기풍	.822	.077	11.873

풍의 6개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진지한 여가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8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낸 요인들 간에 Babozzi & Yi(199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좀 더 엄격한 방법으로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방법은 특정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1로 제약한 모형과 자유모수로 추정된 모형을 대상으로 x2 차이 검정을 통해 두 모형이 동일한 모형인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에서 두 모형이 차이가 없다고 판명되면 상관계수를 1로 제약한 두 잠재변인은 같은 개념이므로 판별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의 비교에서 x2 차이가 자유도 1에서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논의

여가(leisure)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여가와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에 여가의 의미가 태도(attitude) 그리고 동기(motivation)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게 되면서, 여가를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으로 정의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Csikszentmihalyi, 1975; Dumazedier, 1974; Kelly, 1996). 특히 Stebbins(1982a)는 여가가 개인적 표현, 자아실현, 정체성 향상, 자기만족과 같은 개인적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여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심리적 상태를 강조하는 '진지한여가(serious leisure)'를 소개했다(김미량, 2009).

진지한여가의 개념은 현대인의 여가참여 형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지한여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진지한여가 척도의 개발은 진지한여가와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하여, 주관적 여가참여 수준에 대한 양적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몇몇 진지한여가 척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척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척도는 연구의 타당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척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내용 검토와 타당도 검증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미래의 올바른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기존에 개발된 진지한여가의 척도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진지한여가 척도를 재정립하여 진지한여가에 대한 후속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의 하위요인은 인내(perseverance), 여가전문성(leisure career), 개인적 노력

(personal effort), 지속적혜택(durable benefits), 여가정체성(leisure identity) 그리고 독특한기풍(unique ethos) 등 6개 요인으로 재구성되었고 각 요인별로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척도는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통계적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내적보상(internal reward)' 요인이 '지속적혜택(durable benefits)' 요인으로 재정립 된 점이다. 기존의 척도에서는 '지속적인혜택' 요인이 진지한여가 참여를 통한 결과이며 동기인 '개인적보상(personal rewards)'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 기존의 진지한여가 척도개발 연구 초기에는 '지속적혜택'과 '개인적보상' 요인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한 요인으로 묶여 '내적보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Stebbins(1992b, 2001, 2002, 2007)가 제안한 대로 '지속적혜택'은 진지한 여가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인 반면, '보상'요인은 여가활동 중에 나타나는 결과 및 동기라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전에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의미적으로 중복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기표현, 자기쇄신, 성취감, 소속감 등의 '보상'은 진지한여가활동 참여 중에 나타나는 결과지만 진지한여가의 특성인 '지속적혜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혜택'은 진지한여가 참여자의 기대여부와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기분좋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혜택과 보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져야 하며 특히 진지한여가 여부와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에서는 '보상'의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진지한여가의 참여 중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동시에 참여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은 여가활동 종류와 참여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진지한여가 척도를 이용한 관계연구를 통해 향후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 재정립된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는 현재까지 연구된 진지한여가의 결과를 잘 반영하면서 Stebbins가 제안한 진지한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에도

잘 부합되는 척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는 향후 진지한여가에 대한 양적연구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최근 진지한여가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복지, 사회학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진지한여가 척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진지한여가 척도를 재정립하였다.

진지한여가 척도는 진지한여가의 6개 특성에 맞추어진 6개의 요인으로 최종 구성되었고 그 요인은 인내(perseverance), 여가전문성(leisure career), 개인적 노력(personal effort), 지속적혜택(durable benefits), 여가정체성(leisure identity) 그리고 독특한기풍(unique ethos)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4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새롭게 재검토 및 구성된 진지한여가 척도II(SLSII)는 기존의 척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진지한여가 활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척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진지한여가를 상태로 볼 것인지,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상태로 본다면 진지한여가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진지한여가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지한여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참여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하며 진지한여가로 가는데 방해되는 제약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여가활동 유형별로 혹은 참여형태별로 진지한여가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기대된다. 한편, 진지한여가의 참여 중에 나타나는 결과 및 동기변인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보상과 진지한여가의 관계규명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민(2000). '전문형 여가'로서 마스터즈 수영클럽 참가자의 전문성 경험과 참가이유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12.
- 김미량(2009). 진지한여가 척도개발. **한국체육학회지**, 48(4), 397-408.
- 김미량, 김재운, 황선환(2010). 진지한여가척도(SLIM)의 단일문항 측정 적용검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147-156.
- 김미량, 원형중, 홍석표(2008). 합의 델파이 방법을 통한 Serious Leisure의 개념화. **한국체육학회지**, 47(1), 285-298.
- 박수정(2002). **전문적 여가스포츠참여자의 여가경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수정(2004). 전문적 여가스포츠 경험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도 검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7(1), 33-45.
- 이연주(2005). 진지한여가(serious leisure)로써의 한국 프로축구 서포터즈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4(2), 553-563.
- 황선환, 서희진(2009). 진지한여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8(3), 387-396.
- Arai, S. M., & Pedlar, A. M. (1997). Building communities through leisure: citizen participation in a healthy community initia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2), 167-182.
- Bagizzi, R. P., & Kimmel, S. K. (1996). *The role of self-schemas and action control in the regulation of goal-directed behaviors: The case of exercis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 Baldwin, C. K., & Norris, P. A. (1999). Exploring the dimensions of serious leisure: "Love Me-Love My Do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1), 1-17.
- Beard, J. G., & Ragheb, M.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Goff, S. J., Fick, D. S., & Oppliger, R. A. (1997).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serious leisure and spouses perceived leisure-family confli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47-6.
- Gould, J., Moore, D., McGuire, F., & Stebbins, R. A. (2008). Development of the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 47-68.
- Kelly, J. R. (1996). *Leisure*. Needham Height, MA: Allyn and Bacon.
- Park, I. H. (2005). *Issues and concurrent solutions in SEM(CF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Regin: Canada.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 Stebbins, R. A. (1992a)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A. (1992b). Cost and Rewards in Barbershop Singing. *Leisure Studies*, 11(1), 123-133.
- Stebbins, R. A. (2001). *New directions in the theory and research of serious leisure; Mellen Studies in Sociology*(28). NY: The Edwin Mellen Press.
- Stebbins, R. A. (2002). *The organizational basis of leisure participation: A motivational explor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EA.

Yoder, D. G. (1997). A Model for commodity intensive
seriou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07-429. explor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